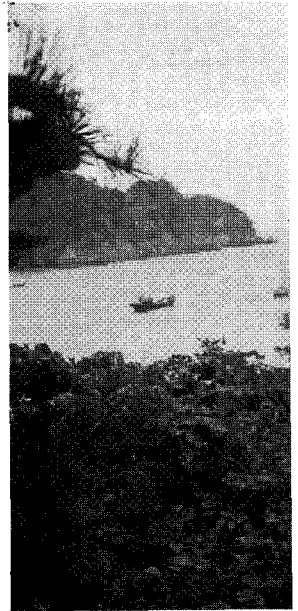


어청도항, 地盤침하에 대비

상치콘크리트 분리 시공

6~7m 거센 파도 막아



심 상 만 / 조흥공영(주) 어청도항 현장 소장

어청도는 군산에서 74km 떨어진 서해낙도로서 150여 가구에 5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우럭, 노래미, 농어 등의 채낚기 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어청도는 전형적인 어촌이며 근해의 청정해역에서 어획한 싱싱한 수산물은 국내 어느 곳보다도 월

등한 맛과 깨끗함을 자랑하고 있다.

서해 해상은 가을에서 다음해 봄까지 주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지만 어청도항은 동북서 방향이 병풍같이 둘러싸여 남쪽으로 향하고 있으므로 이 계절풍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천혜의 어항이다.



그러나 1989년 9월 30일 해일로 인해 어청도항에서는 16명의 인명과 90여척의 어선이 파손되는 등 대형피해가 발생했다. 이같은 피해는 일찍부터 어청도 주민이 우려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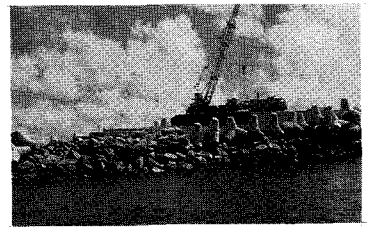
어청도항은 1966년 이전에 이미 동방파제와 물양장이 완성되었으나 그 동안 지속적인 보수보강이나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어항은 기상악화시 어선의 긴급 대피로 어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때로는 출어선의 선수품을 공급하거나 간이 어선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낙도에 위치한 어청도항은

많은 사람의 관심밖으로 몰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어청도항의 개발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89년의 해일때문이었다. 해일로 인하여 인명, 재산, 어항시설물 등 많은 피해를 입게되자 서둘러 피해 복구와 함께 새로운 개발계획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본 항의 취약방향인 남(남동, 남, 남서)풍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 방파제 250m, 동 방파제 250m, 물양장 200m를 시공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서해안의 새로운 수산업 전진기지이자 긴급 대피항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주민의 숙원도 이뤄지게 되었다.

어청도항을 개발하는 데는



그동안 인력 자재 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히 15m의 수심에 10~15m의 연안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잔류 침하로 인한 방파제 공사의 최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침하에 대비하여 그동안 상하부만을 분리시공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시공경험을 토대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시공구간 상부(상치콘크리트)를 분리하여 80cm의 여유를, 올해 시공구간에는 120cm의 여

유고를 결정하여 시공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1993년 6월 1일에 내습한 폭풍으로 시공중인 방파제(사석)가 유실되기도 했고 올해 8월 26일 태풍 제니스가 서해 해상을 관통할 때는 현

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낙도 오지에서 비록 흙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한 사람일지라도 어항건설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얼마나 막중한 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어청도항은 올해부터 건설시공을 위한 책임 감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달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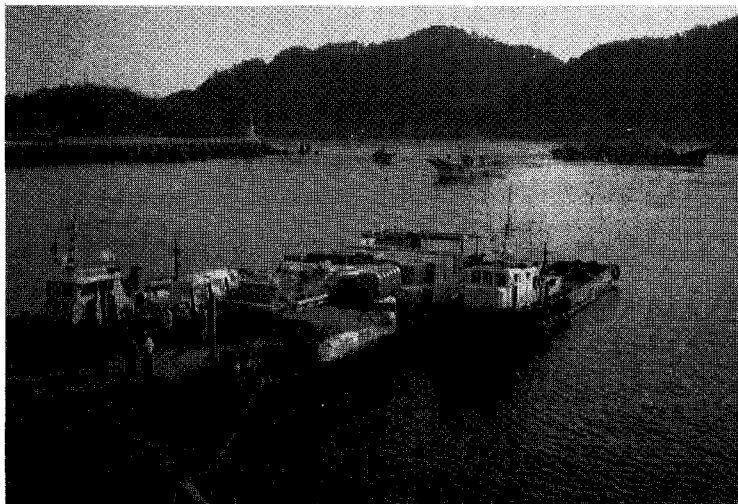
개발이란 만인에게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게 계획되고 또 실천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불편과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어항공사는 어민이 안락하고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정부사업임을 감안할 때 이해 관계인의 무리한 요구는 대화로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과제이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희망을 갖고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그러나 민원이 공사에 미치는 중압감, 더욱이 여객선 부두와 동방파제 추가공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심리적 부담은 배가 되고 있다.

아무쪼록 어청도항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전 어항건설현장의 민원이 무리없이 해결되길 바랄뿐이다.

본인에게 이 난을 할애해준 한국어항협회에 감사하고 줄필을 접하신 모든 분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어항건설과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아울러 어청도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 



대민지원

장사무소와 숙소가 파손되어 난민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높이 6~7m의 거센 파도를 방파제가 막아줌으로써 항내의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해 있는 현장을 난생 처음 목격했다.

그처럼 거센 파도에도 끄덕없이 견디는 방파제, 항내에서 대피중인 어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방파제, 그 위력과 역할에 놀라지 않을 수 없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 또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들과의 긴밀한 유대를 위해 쓰레기 차의 기증과 건물 70여호의 신 증축 및 중장비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후회와 본인의 무능함을 탓하며 질책하고 변민도 했다.